



추석대목 재래시장

추석을 닮아 17일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에는 제수용 과일과 생선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잦은 비와 태풍으로 제수용 음식 값이 크게 올랐지만 명절을 맞아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4900만 민족대이동 시작됐다

### 서울~광주 6시간30분 예상...20일부터 본격 귀성전열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된 17일 고항으로 향하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 귀성·귀경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추석 연휴는 21일부터 사흘간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20일과 24일을 휴무일로 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서 사실상 이날부터 연휴로 접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18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4949만명, 하루 평균 55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금 연휴'가 시작된 이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고속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는 고향을 가기 위한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광주와 부산, 대구 등으로 향하는 주요 노선이 모두 매진돼 본격적인 '귀성 전쟁'이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귀성행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호남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총 296만대(하루 평균 59만대)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특히 추석 당일인 22일 광주·전남으로 귀성하는 차량이 38만9000대, 귀경하는 차량이 3만6800대로, 이번 연휴 기간중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석 당일 최대 귀성소요시간은 서울~광주 구간과 서서울~목포 구

간 모두 6시간30분으로 예측했다. 또 귀경시에는 광주~서울 6시간, 목포~서서울 6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선 주요 정체 예상구간은 익산~익산 분기점 6km, 문흥~동광주 4km 구간이다. 또 확장공사로 인해 정체가 우려되던 동광주~고서 구간과 논산~삼례 구간은 각각 조기개통과 임시개방으로 큰 정체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를 오가는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는 평소보다 각각 18.1%, 6.4씩 횡수를 늘려 운행되며, KTX 등 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나 귀성·귀경객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고속도로의 흐름은 대부분 원활한 상태이며, 광주에는 1만6000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1만2000대가 광주를 빠져 나가 평소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동안 하루 평

균 25만대의 차량이 광주·전남에 들어오고, 21만대의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가용을 이용해 광주를 찾은 김모(45·서울시 강남구)씨는 "매년 반복되는 '귀성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일제감정 고향을 찾았다"며 "형제들도 대부분 오늘 밤부터는 고향집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기기자 kimho@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주머니탕, 육개장  
· 특선해물튀김 - 35,000

**특별객인**

-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제공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일순연 · 각종 세미나 (대·중·소연회장 준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황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에 흡수합병

### 21년 단독법인 마감...생활가전 전략기지 위상 커질 듯

광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삼성광주전자가 삼성전자에 흡수합병된다. 삼성전자는 17일 이사회에서 삼성광주전자의 흡수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삼성광주전자는 삼성전자가 94.25%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청소기·압축기(컴프레서) 등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989년 광주전자(주)로 설립됐으며, 지난해말 총 자산규모 7685억원에 매출액 3조2000억원, 종업원 수 3473명에 이르는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삼성광주전자의 흡수합병'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며, 내년 1월1

자로 공식 통합된다. 삼성광주전자 전체 임직원의 고용은 승계된다. 삼성전자와 삼성광주전자의 합병 비율은 1대 0.0252536으로 결정됐다. 합병가액은 삼성전자 75만7000원, 삼성광주전자 1만9117원으로 산정됐다. 이로써 가이아자동차와 함께 광주 경제의 한 축을 이뤘던 삼성광주전자는 지난 1989년 광주전자로 설립된 지 21년만에 단독법인의 시대를 마감하고 삼성 생활가전 사업장으로 삼성전자의 정식 가족이 됐다. 법인이 흡수돼도 지방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세는 납부하는 기관만 변경될 뿐 변화가 없고, 지방세도 공장 건축물·종업원 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며 "오히려 삼성전자의 법인세 규모가 삼성광주전자보다 커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사업장은 "2013년 생활가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전략-배후기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로 생활가전 사업 일류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도 삼성전자 합병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의 법인에서 벗어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삼성전자에 통합됨으로써 기업 가치 상승,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0월21일~27일 이산상봉 의견접근

### 장소문제 이견...24일 남북 실무접촉 재논의

남북은 17일 개성 자남산역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협의했으나 상봉장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오는 24일 실무접촉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 일정에는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장소문제 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늘 실무접촉이 종료됐다"며 "24일 개성 자남산역에서 실무접촉을 다시 열기로 했

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금강산 지구 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 측은 구체적인 상봉장소를 제시할 것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요구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실무접촉을 시작해 오전 11시25분에 오전 회의를 종료했으며, 오후 3시45분께 속개했지만 장소 문제로 약 15분 만에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통일부는 상봉 일정에 대해서는 북측이 제시한 10월21~27일로,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상봉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100가족 이상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전례대로 100가족을 주장하며 맞섰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 정례화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 민주 전남도당위원장에 이낙연 선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이낙연(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17일 화순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684표 중 399표를 얻어 285표를 획득한 국창근 전 의원을 누르고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2면> 이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계파 해체와 당내 통합을 통해 전남도당을 정권탈환의 디딤돌로 만들 것"이라며 "당원과 대의원의 권리를 찾아 당

원이 주인이 되는 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선은 원내와 원외 인사 대결인데 2012년 총선 전초전, 당권경쟁 후보와 짝짓기 등의 복잡한 구도 속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 관심이 집중됐다. 이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90세 실학민의 망향가 ▶ 3면 추석연휴 유익한 車보험 ▶ 5면 막강 조연 전성시대 ▶ 10면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 ▶ 13면 남북 여축구 동반 4강 ▶ 14면

# 서남대학교가 『아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의료(의과대학) · 간호 · 보건계열 및 경찰행정법학 특성화대학!**  
**2011학년도 수시모집/정시모집(가,나,다군)**

- 의사국가시험 6년 100%합격
- 법학과 「사법시험 [5회] : 4명 합격
- ROTC : 182학군단 아산 설치 (학년당 27명)
- 간호학과 2009년~2010년 국가시험 100%합격
- 경찰학과 : 경찰 특 · 공채 207명 합격
- (모집인원) : 의예과 51 · 간호학과 77
- 물리치료학과 72 · 작업치료학과 48
- 임상병리학과 36 · 치위생학과 36
- 방사선학과 12 · 응급구조학과 29
- 경찰행정법학과 230 · 사회복지행정학과 160 등

**총 1,036명**

**서남대학교**  
SEONAM UNIVERSITY  
www.seonam.ac.kr  
TEL : (041)539-5511